

# 불교사찰의 원형과 변형

김성진\* · 정명화\* · 이경복\* · 장용순\* · 홍광표\*\*

\*동국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 I. 서론

불교사찰은 기본적으로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를 모신 공간이다. 인도에서 건립되기 시작한 이 사찰은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티벳,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지게 되며, 사찰은 건립된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변형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불교사찰의 변형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역시 중심성이 표현되는 중심공간이며, 중심을 이루는 대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인도사찰의 경우 초기 사찰의 형식은 스투파(Stupa)였으나, 이것이 타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탑과형태가 나타나게 되며,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게 되면 파고다형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위요성이나 방향성의 측면에서도 사찰공간은 원형인 인도사찰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중심, 위요, 방향은 사찰의 중요한 조영원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의 시원적 형식인 스투파가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한국사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중심, 위요, 방향이라는 3가지 조영원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II. 연구사

지금까지 사찰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다. 그러나 Dietrich Seckel(1962)은 일찍이 『Kunst des Buddhismus』에서 불교미술의 전파를 다루었으며, 불교미술의 유형과 형태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불교미술적 관점에서의 원형과 변형에 관한 접근으로서 공간성이나 경관성 등 조경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진하였다. Dietrich Seckel의 연구 이후 사찰의 원형과 변형에 관한 연구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한국사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나, 역시 사찰공간이나 경관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단지 홍광표(1992)의 연구가 신라사찰의 공간형식변화 과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인도의 스투파와 중국사찰의 형식성을 연구하여 부분적으로나마 사찰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한편, 김희영(1984)은 한국사찰의 경관성을 상징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중심, 통로, 경계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사찰의 경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사찰경관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한국사찰의 원형성을 논의하였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찰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연구는 중심, 위요, 방향이라는 3가지 조영원리를 설정한 후에 이 3가지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주로 문헌적 연구를 토대로 불교사찰의 원형이 무엇이며, 이러한 원형을 토대로 어떠한 변형이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한편, 문헌적 연구에서 찾지 못하는 공간적, 경관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를 비롯하여 불교가 전파되었던 여러 나라를 직접 답사하여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중심

불교사찰의 교리나 신앙의 중심은 깨달음에 있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실체로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스투파가 곧 사찰이요 사찰의 중심이었다. 따라서 사찰의 중심은 인도의 스투파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인도에서 조성된 대표적인 스투파는 산치의 대스투파(Maha Stupa, 또는 제1스투파)이다. 이 산치의 대스투파를 통해서 살펴볼 때, 스투파는 그 자체로 공간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있다.

스투파 이후 B.C. 2세기부터 차이티야사원(Caitya)과 비하라(Vihara)사원이 나타났는데, 차이티야의 입구는 방형(方形)이고 내부 공간은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중심부에 소형 스투파를 안치하고 있다. 가장 초기형태를 나타내는 차이티야 석굴은 봄베이(Bombay) 근처인 콘딧트(Kondivte)에 있는 군투팔레(Guntupalle)석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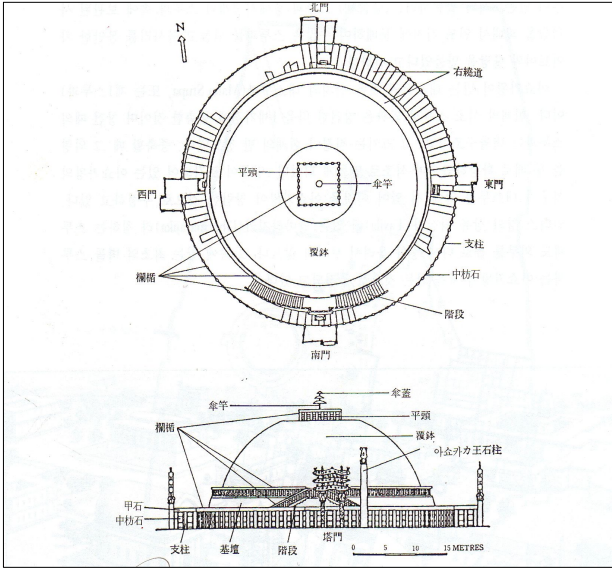


그림 1. 산치 대스투파 평면도 및 입면도  
 자료: 윤장섭, 200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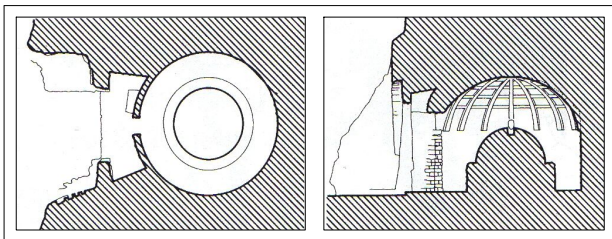


그림 2. 군투팔레 차이티야 석굴 평면도 및 종단면도  
 자료: 윤장섭, 2002: 69

인도에서부터 전파된 동남아시아 각국에 조성된 사찰의 경우에도 인도의 스투파와 같은 형식의 조형물이 사찰의 중심에 놓여지게 된다. 이 경우 인도의 스투파와 같이 스투파 내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만을 봉안한 무덤과 같은 형식의 스투파도 있지만, 스투파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사면 불을 설치하여 예배의 기능을 갖춘 스투파도 발견된다.

불교사찰이 중국에 전파되면서 스투파는 파고다(탑파)의 형태로 바뀌게 되며, 불상을 모신 금당이 탑 후면부에 배치되는 형식을 보이게 된다.

중국 초기의 사찰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백마사(A.D. 67년)와 영녕사가 있다. 이중 남북조시대에 조영된 영녕사의 배치를 보면 중축선상에 주요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전면부에는 사문(寺門)을 두고 그 안에 탑을 세웠으며, 탑 뒤로 금당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형식을 보면 중국의 초기사찰에서는 여전히 탑이 사찰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 참조).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당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하여 사찰이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 사찰의 배치는 중심축선상에 좌우대칭으로 건물들을 배치하였으나 불탑의 규모가 큰 경우는 1탑식 가람배치방식이 사용되고 탑의 규모가 작을 때는 2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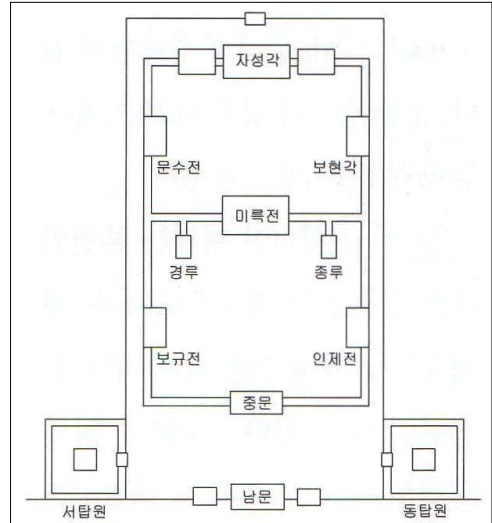


그림 3. 상국사지 배치도  
 자료: 장헌덕, 2005: 39

식 배치방식이 사용되었다(윤장섭, 1999).

쌍탑형 사찰이 처음 나타난 것은 중국에서는 동진(東晉) 초기였지만 당나라시대에 쌍탑형 사찰이 점차 많아졌다. 이러한 탑의 수가 하나에서부터 두 개로 변화되는 것은 불교사찰의 중심성이 변화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쌍탑형 사찰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사찰은 북송의 수도였던 변량성 내에 있는 상국사(相國寺)이다.

당대의 사찰은 이러한 쌍탑형 사찰 외에도 사찰 측면으로 탑을 세우고 사원(塔院)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송대(960-1279)에는 탑을 금당의 뒤에 세우는 방법도 출현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안(西安)의 대안탑(大雁塔)이다.

또한, 소규모의 사찰에서는 반드시 탑이 건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장헌덕, 2005), 이후 중국에서 건립되는 대부분의 사찰은 불상을 안치한 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된 이후 초기의 사찰들은 모두 탑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고구려는 청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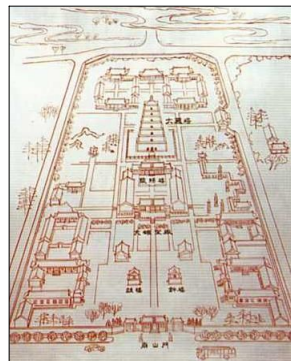


그림 4. 자은사 배치도  
 자료: 장헌덕, 200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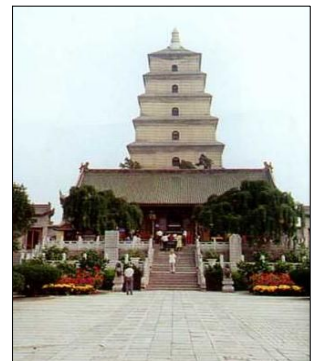


그림 5. 대안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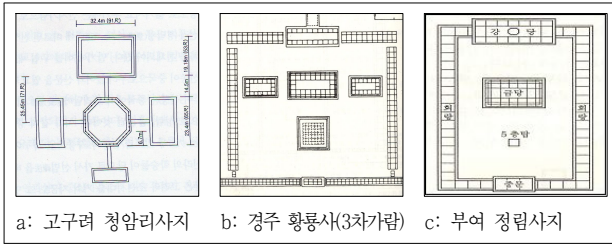


그림 6. 삼국시대 초기의 사찰

리사지, 상오리사지, 토성리사지, 정릉사지등의 사지에서 일탑 삼금당의 사찰형식을 볼 수 있으며, 백제는 서복사지, 정림사지, 금강사지, 군수리사지 등에서 일탑 일금당의 사찰형식이 나타난다. 신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초기에 지어진 황룡사나 분황사 등이 탑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삼국시대의 사찰배치형식을 살펴보면 사찰의 중심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탑이 사찰의 중심이었다.

쌍탑형 사찰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출현하였던 사찰의 유형이다. 쌍탑형 사찰의 배치특성은 중문, 동서 양 탑, 금당, 강당 및 회랑의 건물들이 중심축에 좌우대칭하게 배치되고 금당은 중앙에 놓이게 된다.

이후 우리나라에 화엄십찰이 세워지고, 구산선문이 형성되면서 사찰은 도심평지부에서 산지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사찰의 중심 역시 탑에서부터 불상을 봉안한 금당으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배치형식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도의 스투파에서 시작된 사찰의 중심성은 중국과 한국에 전파되면서 탑이라는 형식으로 변화되었고, 그 후 불상을 봉안한 금당으로 변형되면서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

었다. 이러한 중심성의 변화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되면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2. 방향

인도에서 행해지던 불교의 예배의식은 스투파를 우측으로 선회하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스투파 주위에는 포장된 주회로(周回路)가 만들어졌으며, 주회로의 주위에는 4개의 토라나가 배치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인도의 사찰 특히 스투파는 4방향성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4방향성은 스투파를 중심으로 사찰이 형성되었던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렇게 4방향성을 보이던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사찰들과는 달리 중국의 사찰들은 대부분 일방향적인 진입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사찰인 영녕사의 경우에는 중심에 대한 방향성이 4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양현지(陽鉉之)가 저술한 『낙양가람기』에서 영녕사(516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가람은 중축선상에 남문, 탑, 불전을 배치하였으며, 사방으로 담장을 설치하여 전체 평면은 방형(方形)이었다. 주위의 담에는 단연(短椽)을 시설하고 기와를 덮었으며 담 사방으로 각각 하나씩 문을 내었다. 그 중 남문루는 3층, 동·서 문루는 각각 2층이며, 북문은 오두문(烏頭門)이라고 불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장현덕, 2002).

이 기록을 보면 영녕사는 인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방방향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중국의 초기 사찰은 인도사찰의 공간구성양식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북조시대부터 청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찰들은 일직선축선상에 건물이나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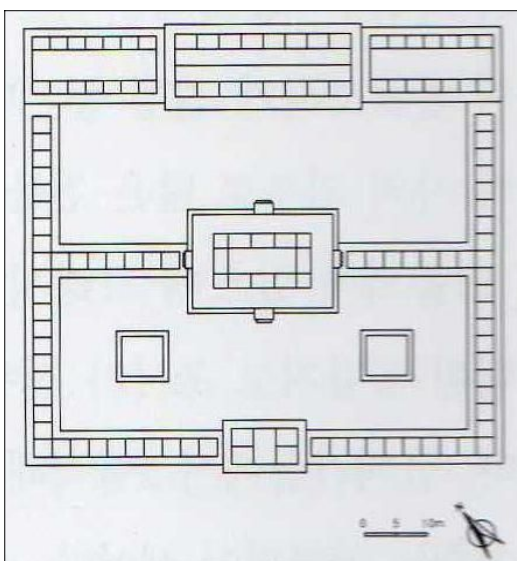


그림 7. 감은사지(682)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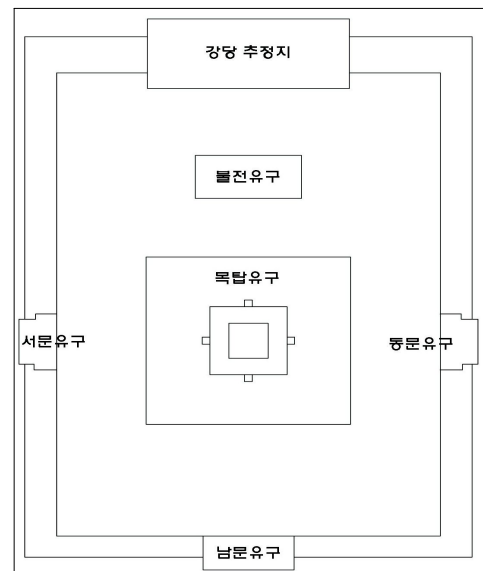


그림 8. 영녕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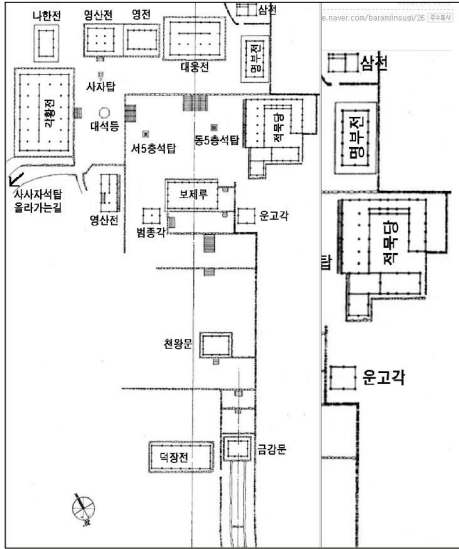


그림 9. 화엄사 배치도

누각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중문을 통해 진입하는 일방향적 진입과정을 보이게 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찰의 방향성도 일방향적이었다. 불교 도입 초기 삼국의 사찰배치를 살펴보면 그 중심은 항상 탑이었고, 진입과정은 중문-탑-금당-강당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축을 따라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한편, 화엄사찰(華嚴十刹)과 구산선문(九山禪門) 등의 산지형 사찰의 경우에는 금당의 중심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삼문을 지나 누각을 통과하는 진입체계를 갖추게 되며, 누각을 지나게 되면 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중심공간이 나타나는 일방향적 진입과정을 보이게 된다.

### 3. 위요

불교사찰의 원형인 스투파의 경우에는 주회로 주변으로 석조의 난순(欄楯)이 돌아가며 배치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난순의 높이는 약 3.6m정도인데(윤장섭, 2002), 스투파의 기단주위에 난 주회로와 난순은 경계의 역할을 할 뿐 위요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발달과 더불어 스투파의 숭배가 중요시되면서 대형 스투파를 건설하여 불교사원의 중심부분에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사당군, 승방군, 만다파(會堂) 및 기타 승려와 신도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건설되어 총림을 형성하게 되었다.

B.C. 2세기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타흐티 바하이(Tahti-Bahai)사원 유적은 남쪽에 주탑원, 북쪽에 승원이 있으며, 그 중간에는 좀 낮은 곳에 다탑원을 배치하였다. 주탑원 중앙에는 한 변이 62m인 정방형의 높은 기대 위에 높은 스투파가 서 있고, 기대 정면에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주탑원 중정 주위에는 3면에 봉헌(奉獻)스투파들을 세웠다. 승원 부분은 3면에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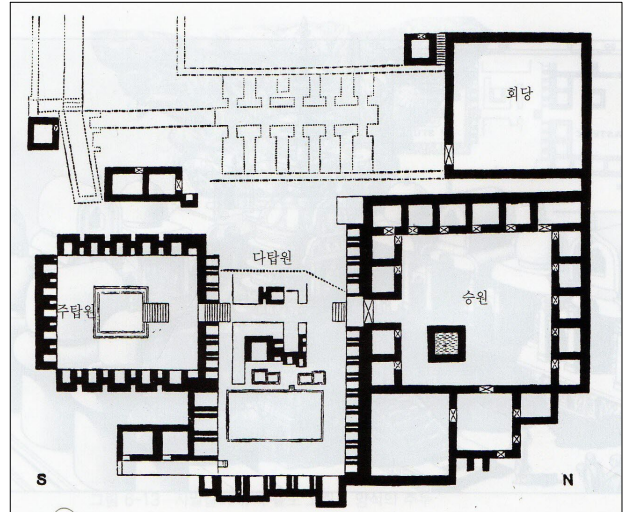


그림 10. 타흐티 바하이 사원 및 승원의 배치도

자료: 윤장섭, 2002: 93

5개씩 승방을 2층으로 만들었으며, 승원 부분 동쪽에는 식당과 부엌을 설치하였다. 승원 서쪽에는 별도의 넓은 회당을 배치하였다.

상가라마와 관련된 기록으로 당나라시대 의정스님(635-713)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 소개된 나란다사원에 관한 기록이다. 나란다사원은 서기 320년 굽타왕조의 두 번째 왕인 쿠마라굽타 1세(415~454)가 창건한 사찰이다. 의정스님은 인도의 나란다사원에서 10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 인도의 사원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절의 형태는 직사각형이고, 지붕은 성과 같이 네 모서리 처마가 직선이다. 건물 둘레는 긴 회랑으로 이어져 있다(조병환, 200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상가라마는 스투파를 중심으로 하고, 승원 둘레에 승방과 회랑이 같이 배치되어 있어 중국과 한국의 사찰에서 나타나는 회랑의 원형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사찰에서는 불교 전래 초기의 사찰에서부터 회랑으로 둘러싸인 사찰의 배치양식이 나타난다.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와, 영녕사에도 물론 회랑이 존재하였다.

당(唐)시대의 사찰양식은 복합중정형식의 배치를 하였으며, 회랑이 주위에 둘러져 있었다. 이후 중국의 사찰에서는 중심공간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각 영역별로 경계를 둘 때, 회랑으로 중심공간을 둘러싸는 형식이 지속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초기 탑중심형 사찰과 쌍탑형 사찰의 경우 경계의 구분이 명확하였고, 경계는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런데 산지에 사찰이 지어지면서 지형적인 영향과 불교교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차츰 회랑이 그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때 회랑이 있었던 자리에는 승당이나 선당과 같은 건물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찰에 따라서는 중층구조를 가지고 중심공간을 둘러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지사찰에서는 단층구조를 보이게 되며, 에워쌌던 정도도 약해서 주변 자연과

의 교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 V. 결론

불교사찰을 중심, 방향, 위요라는 세가지 조영원리의 측면에서 원형과 변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찰의 중심은 인도의 스투파가 원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중심성은 동남아시아와 티벳 등을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단지 전파된 지역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스투파의 형식이 변형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 후 불상이 출현하면서 불상을 봉안한 금당이 중심성을 가지게 되는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중국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스투파는 구조적으로 4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방향의 원형은 중심으로 향하는 4방향성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중국과 한국으로 사찰이 전파되면서 일직선축선상에 중문, 탑, 금당, 강당 등이 놓이는 1방향적 구조로 변형되는데, 이것은 금당이 사찰의 중심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1방향적 구조로 바뀌게 되면 사찰의 중심이 수평적 중심에서 수직적 중심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

초기 사찰의 형식인 인도의 스투파의 경우에는 위요라는 개

념이 분명치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스투파에 부속건물이 덧붙여지면서 스투파를 중심으로 하는 위요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위요성은 중국으로 오면서 회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본격화되며, 한국초기 사찰의 경우에도 회랑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회랑은 단순히 복도의 개념인 것도 있었지만 회랑과 더불어 승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위요감이 한층 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이 산지에 지어지면서 이러한 위요성이 약화되었는데, 그것은 자연에 대한 조화를 바탕으로 사찰이 조영된 결과이다.

## 인용문헌

1. 김휘영(1984) 상징으로 본 한국 불교사찰의 경관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백승길 역(1985) 불교미술. Dietrich seckel. Kunst des Buddhismus. 열화당.
3. 윤장섭(2002) 인도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4. 윤장섭(1999)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장현덕(2005) 중국과 한국의 불교건축. 빛과 글.
6. 조병환(2005) 다르마로드 1. 랜덤하우스중앙.
7. 홍광표(1988) 사찰의 공간구성. 환경과 조경지 21. 환경과 조경사.
8. 홍광표(1991) 신라사찰의 공간형식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9. 홍광표(1992) 한국전통사찰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연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